

1. 출생 (1922~1927)

1922년 3월 1일 나운영은 아버지 나원정(羅元鼎), 어머니 박정순(朴貞順)의 4남1녀 중 4남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¹⁾(구 의주로 1가 112번지, 현 미근동 220번지) 109번지에서 출생²⁾하였다.



[나운영의 생가 - 집 앞에 경인선 철로가 놓여져 있다]

- 1) 나운영이 스스로 작성한 연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음.
- 2) 현재 서소문 경찰청 부근 국민권익위원회 자리로 추정.

나운영의 아버지 나원정(1888. 6. 4~1929. 1.25)은 일본 동경 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한 생물학자로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강사를 역임하였고,³⁾ 경신학교(敬新學校) 학감으로 8년 동안 시무하였다. 이후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선생이 교장으로 계시던 중앙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재직하던 중, 학생사건 때문에 맞아서 다쳤던 후유증과 잠시 옥에 갇혔던 후유증으로 인해 병이 생겨 1928년 3월 중앙학교를 사임하였고, 이듬해 1월 25일 아침 자택인 서울 의주동 1정목에서 별세하였다.⁴⁾

나운영의 아버지는 아마추어 국악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달리 국악에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거문고, 아쟁, 가야금, 양금, 대금, 통소, 단소 등 많은 국악기를 사랑방에 모아 놓았고 한 달에 두어 번씩 친구들을 불러 함께 연주를 하곤 하였다. 나운영의 아버지는 대금이나 단소를 부셨는데 그때 아버지와 동호인들이 연주한 곡들은 그냥 재미삼아 연주하는 민요가 아니라 제례악(祭禮樂)이나 영산회상(靈山會上)과 같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곡을 연주했다고 한다.

어린시절 나운영은 가끔씩 이 사랑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연주를 듣는 것을 즐기곤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날 나운영이 6살(1927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나운영을 사랑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셨다. 나운영은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걱정하다가 사랑방에 들어가 꿇어 앉아 있었더니 아버지께서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와 나운영 앞에 내려 놓으셨다. 그 나무상자가 바로 양금(洋琴)이었는데, 나운영은 이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양금 교습을 받아 나중에는 영산회상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⁵⁾

3) 연세대학교 백년사 1권(1985년 발간) 100쪽.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명단에 전임강사 나원정 농학사 생물학 강의라고 기록되어 있음.

4) 동아일보 1929. 1.27 기사

- 교육계의 공로자 나원정씨 장거, 숙환으로 이십오일아침에 -

근 이십년을 하루같이 육영사업에 몸을 바치던 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무주임 라원정씨는 사십이세를 일기로 이십오일 아침에 동씨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는바 씨는 지금으로부터 십칠년전에 동경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경신학교 학감으로 취임한후 계속하여 팔년동안을 시무하다가 구년전에 중앙학교 교무주임으로 전임하여 모든 정력을 오죽 육영사업에 경주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병마에 걸리어 작년 삼월에 동교를 사임하고 자택에서 치료중 약석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전귀한 시일과 장소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습으로 일반유지들은 무한 애석히 녀긴다하며 동씨의 유족으로는 아들사형제와 딸하나의 오남매가 있다더라

5) 1986 KBS TV '11시에 만납시다' 인터뷰 내용 및 수상집 4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64쪽